

문체표지(style markers)로서의 말줄임표와 의성어·의태어 번역 — 「풍금이 있던 자리」를 중심으로

김 순 영·이 선 영*
(동국대-서울)

1. 서론

「풍금이 있던 자리」는 아홉 편의 단편이 수록된 신경숙의 소설집 『풍금이 있던 자리』(1993)의 표제작으로, 신경숙 작가 특유의 섬세한 감성과 문체가 돋보이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가정이 있는 남자와 사랑에 빠진 젊은 여자인 ‘내’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회상하게 되면서 그 남자에게 편지로 이별을 고한다는 줄거리의 이 작품은 편지글 형식을 빌어 나직나직하게 고백하듯 뱉어내는 ‘나’의 서술이 “통속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소재를 미학적”이고 서정적으로 풀어내며 “인상적인 장면을 긴밀하게 통합함으로써 높은 예술적 성취”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이훈 2003: 15). 이 작품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서른 쪽 남짓한 짧은 이야기 속에 빈번히 등장하는 말줄임표와 의성어·의태어의 잦은 사용

* 김순영(교신저자), 이선영(제1저자)

이다. 1990년대 대부분의 문장들은 “문장부호나 수식어가 대체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데 비하여 신경숙의 문장은 “매우 호흡이 긴 문장”이며, 이러한 긴 호흡의 문장들은 주로 “부사와 관형사를 이용한 감각적인 수사¹⁾와 쉽표, 말줄임표, 느낌표와 같은 감정적인 문장부호들에 의해 표현” 되었다(양선미 2014: 181). 양선미는 「신경숙 소설의 창작방법 연구」에서 우발성의 강조, 만연체와 감각적 수사, 외면과 내면의 불일치를 신경숙 소설에 나타나는 문체적 특성으로 꼽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만연체와 감각적 수사를 구성하는 장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줄임표와 의성어·의태어이다. 예를 들면, “얼룩덜룩”, “텅……텅”, “포르르”, “깍둑깍둑” 등의 의성어·의태어를 풍부하게 활용하여 “평범한 사물이나 현상을 특화”시키고, “구체화”하는 특성을 보인다(양선미 2014: 184). 또한, 황도경(2002: 61-62)은 신경숙의 문장에서 나타나는 쉽표와 말줄임표 같은 문장부호를 “형태상의 흔들림”, “마음의 암전 상태, 내면의 불연속적 흐름, 끊김을 언어의 표기적 층위에서 드러내”는 것, “머뭇거림, 흔들림”이라 설명한다. 이러한 언급들을 종합해보면, 「풍금이 있던 자리」에서 나타나는 말줄임표, 의성어·의태어의 빈번한 사용은 신경숙만의 문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체표지(style markers²⁾)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작가의 의도가 “일련의 언어적

- 1) 의성어·의태어의 문법범주가 부사임을 고려하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사’란 주로 의성어·의태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 2) Enkvist(1964)는 문체를 주어진 맥락에서 나타나는 언어 항목의 빈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 보았으며, 문체표지란 특정 문맥에서만 나타나거나, 혹은 특정 맥락에서 가장 많이 또는 가장 적게 나타나는 언어 항목이라 보았다. 그는 문체표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We may now define style markers as those linguistic items that only appear, or are most or least frequent in, one group of contexts. In other words, style markers are contextually bound linguistic elements. (Enkvist 1964: 34)

Leech & Short(1981/2007 2장)는 문체란 특정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이며, 이 중에서 두드러진 특징(salient feature)을 보이는 것을 문체표지라고 본다. 특정 텍스트에서 무엇을 문체표지로 볼 것인가는 대개 ‘직관적 관찰(intuitive observation)’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한 텍스트의 언어 자질을 완전하게 열거할 수도 없지만,

선택을 하게 만들고, 이러한 선택이 문체를 구성”(Boase-Beier 2006: 33)하여 내용뿐 아니라 언어의 형식 역시 의미의 전달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번역의 관점에서 보자면, 원천텍스트에 나타난 이러한 문체표지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표현적 텍스트, 즉, 시나 소설 등과 같은 문학작품에서는 “내용물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작가가 그것을 어떻게 엮어내고 배열하는가에 따라 독자에게 전달되는 맛”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김순영 2010: 79). 따라서 번역과정에서 작가에 의한 언어적 선택, 즉, 문체표지를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풍금이 있던 자리」에서는 말줄임표와 의성어·의태어의 빈번한 사용이 직관적으로 관찰된다. “완전하게 매듭지어지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는”(황도경 2002: 32),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마음의 움직임”(박혜경 1993: 288), “감각적인 수사”(양선미 2014: 183) 등과 같은 신경숙의 문체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의 언급을 바탕으로 말줄임표와 의성어·의태어의 빈번한 사용이 유효적인 문체표지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말줄임표와 쉼표를 아우르는 구두점의 번역에 관한 연구(김도훈 2011)나 의성어·의태어의 번역(김도훈 2014, 노진서 2008 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들 언어기체가 갖는 문체적 특성보다는 개별 언어요소 단위에서의 번역전략에 주로 관심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풍금이 있던 자리」의 경우처럼 말줄임표와 의성어·의태어의 빈번한 사용이 유효적인 문체표지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 즉, 김홍수(2014: 6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작가·작품의 파를 문체”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언어요소로서의 번역전략뿐만 아니라 “그 작가의 문학·작품 세계 전반을 염두에 두고 그 전체적, 핵심적 표현·문체 특성이 여러 문체 현상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현상들 서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련”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풍금이 있던 자리」에 나타난 문체표지들인 말줄임표 그리고 의성어·의태어가 번역본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

두드러진 언어 특징을 문체표지로 선택하여 문체를 정량적으로 기술하는 접근이 정성적 분석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음 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체표지인 말줄임표, 그리고 의성어·의태어의 번역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말줄임표의 쓰임과 기능, 그리고 분석의 기준을 다루고, 4장에서는 실제 번역 예시를 바탕으로 문체표지로서의 말줄임표, 의성어·의태어의 번역 양상을 분석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번역 양상 분석에 대한 결과를 논의할 것이다.

2. 선행연구

2.1 말줄임표의 번역

문장부호에 대한 번역 연구는 특정 텍스트의 문장부호에 대한 번역 현상(황은하 2013) 혹은 영어-한국어의 유사 기능을 가지는 개별 문장부호에 대한 번역 전략(김도훈 2013) 연구 등이 있으나 축적된 연구는 많지 않다. 말줄임표의 번역에 대한 연구로는 영어 문장부호 일립시스(ellipsis)와 한국어 말줄임표의 기능 및 용법을 비교하고 번역 전략을 살펴본 김도훈(2011)이 있다. 김도훈(2011)은 한국어 말줄임표의 문장 미완성 표시, 말없음 표시 기능은 영어 일립시스와 유사하지만 한국어에 없는 일립시스의 기능의 일부는 한국어로 번역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어에 없는 일립시스의 기능을 번역할 때 일립시스와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하여 한국어 말줄임표를 이용하는 번역은 한국어 용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한다. 번역 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장부호의 번역 전략을 논의한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말줄임표나 일립시스와 같은 문장부호를 기술적인 기능을 지닌 도구로만 다루고 있어 문체적 특성을 보이는 문학작품에서 의미기능을 지닌 문장부호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2 의성어·의태어의 번역

의성어·의태어의 번역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영어와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를 비교하고 언어 간 차이에 따른 의성어·의태어의 번역전략을 다룬다. 노진

서(2008)는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의성어·의태어의 번역 양상과 번역전략을 살펴보았다. 현대시의 한영번역에는 설명적 어구를 사용한 풀어쓰기, 생략, 의성어·의태어로의 대체의 세 가지 번역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한국어 의성어·의태어의 어휘는 영어보다 상대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한국어 의성어·의태어의 등가적인 표현을 찾기 힘들고 원천텍스트에 사용된 의성어·의태어의 전달 의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풀어쓰거나 생략을 하는 전략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김도훈(2014)은 한국어와 영어의 의성어·의태어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보고 한영 번역 시 활용할 수 있는 번역 기법으로 영어 감탄사 사용 기법, 동사 사용 기법, 그리고 설명적 어구 사용 기법을 제시한다. 원천텍스트에서 의성어·의태어의 등가 의미를 지닌 어휘가 있는 경우 영어의 감탄사나 동사를 활용한 번역기법이 사용되고 등가 의미를 지닌 어휘가 없는 경우 설명적 어구를 사용하는 번역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연구는 의성어·의태어의 실제 번역현상을 바탕으로 번역전략을 논의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한국어 의성어·의태어가 지니는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어 차원에서의 등가만을 다루고 있어 의성어·의태어의 기능 및 쓰임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말줄임표와 의성어·의태어

3.1 말줄임표

말줄임표는 글에서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장부호 중 하나이다. 2015년에 개정된 <한글 맞춤법>³⁾에 따르면 말줄임표는 ‘할 말을 줄였을 때’,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 할 때’, 그리고 ‘머뭇거림을 보일 때’의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기능과 예는 다음 표와 같다.

3) 새국어생활 제 24권 제 4호(2014년 겨울). [부록] <한글 맞춤법> 부분 개정안(문장부호) 참조.

〈표 1〉 말줄임표의 기능과 예시

기능	예시
문장 미완성 표시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말 없음 표시	“빨리 말해!” “…….”
생략 표시	‘고유’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본디부터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같은 역사적 환경에서 공동의 집단생활을 영위해 오는 동안 공동으로 발견된, 사물에 대한 공동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한국의 고유 사항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림 표시	“우리는 모두…… 그러니까…… 예외 없이 눈물만…… 흘렀다.”

위의 네 가지 기능 중 ‘문장 미완성 표시’는 의미·통사적으로 미완성된 문장인데 말끝을 흐리면서 긴 휴지(pause)가 나타날 때 사용한다. 문장 미완성 표시로 쓰인 말줄임표는 가운데점 6개와 마침표(.)로 표시된다. 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 없음 표시’는 말해야 할 상황에서 말하지 않는 침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사소통의 의미를 가진 발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생략 표시’의 말줄임표는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머뭇거림 표시’는 화자가 말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머뭇거림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으로, 발화의 내용이 생략되지는 않는다.

영어에서는 일립시스가 한국어의 말줄임표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일립시스는 단어 또는 그 이상의 문장 성분의 ‘생략 표시’, ‘문장 미완성 표시’, ‘단어 열거 표시’, ‘휴지와 머뭇거림 표시’ 기능으로 분류한다. 일립시스의 구체적인 기능과 예는 다음과 같다.

〈표 2〉 일립시스의 기능과 예시

기능	예시
생략 표시	Sheldron observed, "The marketplace was crowded with fruit sellers, basket-toting shoppers, and every conceivable variety of transport..."
문장 미완성 표시	Lincoln began,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단어 열거 표시	All the most wonderful smells in the world seemed to be mixed up in the air around them – the smell of roasting coffee and burnt sugar and melting chocolate and mint and violets and crushed hazelnuts and apple blossom and caramel and lemon peel ...(Dahl, 1964, p.61)
휴지와 머뭇거림 표시	"But ... but ... but ..." shrieked Mrs. Salt.(Dahl, 1964, p.113)

Webster's New World Punctuation(2006)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말줄임표와 영어의 일립시스는 인용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때, 화자가 머뭇거리거나 말을 잠시 멈추는 것을 나타낼 때, 화자가 말을 끝내지 않았음을 나타내거나 결론을 독자의 상상에 맡기고자 할 때 등 거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단, 한국어는 ‘말하기’와 더불어 의사소통의 의미를 가진 침묵을 말줄임표로 표시하는 기능이 있지만 영어는 구체적인 예시를 위하여 단어의 열거가 계속될 때 일립시스로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문장 미완성 표시 기능에서, 한국어 말줄임표는 가운데점 6개와 마침표(.)로 표시되지만, 영어의 일립시스는 마침표(.) 없이 점 3개로 표시한다. 문장의 끝에 마침표까지 포함하여 4개의 점으로 표시된 경우는, 완성된 문장을 나타내며 머뭇거림이나 주저함을 표시한다⁴⁾.

4) Webster's New World Punctuation(2006)에 따르면 생략 표시 기능의 경우에도 연속된 단어의 생략인지, 인용문의 중간에 생략된 것인지, 하나 이상의 문장을 생략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생략하는 부분 내에 속한 느낌표, 물음표 등과 같은 문장부호를 표시하는 방법이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

3.2 의성어·의태어

‘음성상징어’, ‘흥내말’, ‘시늉말’, ‘상징어’, ‘상징부사’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는 다른 언어의 의성어·의태어보다 어휘가 발달되어 있어 부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조창규, 2005). 의성어·의태어는 통사적인 분류에 따르면 부사에 속하지만 일반부사와는 차이를 보인다. 일반부사는 동사, 부사, 명사를 수식하는 성분부사 또는 문장을 수식하는 문장부사로 사용되지만 의성어·의태어는 일반 부사처럼 성분부사의 기능을 하지만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일반부사와는 달리 서술어, 독립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파생접미사 -대다, -이다, -거리다, -하다 등과 결합한 용언으로 파생되어 동사나 형용사가 되기도 한다. 부사와 의성어·의태어의 차이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기능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3〉 일반부사와 의성어·의태어의 비교

구분	기능		예시
일반부사	성분부사	동사수식	매우 힘들다.
		부사수식	매우 빨리 댕다.
		명사수식	바로 그가 시인이다.
	문장부사	문장수식	제발, 일이 성사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의성어·의태어	성분부사	명사수식	철수는 따르릉 소리에 잠을 깨었다.
		형용사수식	몸살이 나서 온몸이 새큰새큰 아프다.
		동사(구)수식	산봉우리가 우뚝우뚝 높이 솟았다.
	기타	서술어기능	햇별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독립어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다.
		용언으로 파생	-대다, -이다, -거리다, -하다와 결합하여

의성어·의태어는 의미나 화용상으로도 다른 어휘 부류와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의성어·의태어는 개념적 의미의 전달보다는 감각적 표현 가치를 위해 사용되어 소리나 모양, 움직임을 직접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처럼 표현한다. 이처럼 특징적인 어휘 특성을 지니는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는 그 의미뿐 아니라

독특한 형태에서 말맛이 우러난다. 또한 외래어의 침투도 거의 받지 않고 외국어로 번역하기도 어려운 특이한 어휘부류이다.”(채완 2003, 앞표지 날개)

한국어 의성어·의태어와 달리, 영어의 경우 의성어를 지칭하는 ‘onomatopoeia’라는 용어가 있지만 의태어는 총칭하는 용어조차 없다. 영어에서는 의태어보다 의성어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한국어와 비교하면 그 수가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영어 의성어·의태어의 기본 품사는 감탄사이지만 ‘울다’가 세분화된 ‘blub’, ‘blubber’, ‘sniffle’, ‘snivel’, ‘sob’처럼 의성어·의태어의 의미가 수반된 동사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어와 영어의 말줄임표와 일립시스, 그리고 의성어·의태어의 쓰임과 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풍금이 있던 자리」에 나타나는 말줄임표와 의성어·의태어를 기능별로 분류하고, 이 두 문체표지들이 목표텍스트에서는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대조 분석해보기로 하겠다.

4. 데이터 분석

「풍금이 있던 자리」는 1993년 문학과 지성사에서 발간한 작가 신경숙의 첫 단편소설집 『풍금이 있던 자리』의 표제작으로, 작중화자인 1인칭의 ‘나’가 ‘사랑하는 당신’이라 칭하는 청자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영역본의 제목은 *The Place Where the Harmonium Was* 이고, 아시아 퍼블리싱(Asia Publishing)에서 펴낸 바이링글 에디션 한국현대소설 열두 번째 작품이다. 전문번역가 아그니타 테넌트(Agnita Tennant)가 번역했으며, 번역본이 출간된 것은 2012년이다.

말줄임표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4.1 말줄임표

「풍금이 있던 자리」는 총 615개 문장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어 말줄임표의 기능을 중심으로 「풍금이 있던 자리」의 원천텍스트⁵⁾에 나타난 말줄임표의

쓰임을 살펴본 결과 총 47개 문장에서 말줄임표가 사용되었다. 각각의 말줄임표를 그 기능과 출현 빈도에 따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ST와 TT의 말줄임표 사용빈도

ST		TT		비고
기능	사용빈도	사용빈도		
문장 미완성 표시	3	0	TT에서 머뭇거림으로 전환	
생략표시	4	2	생략 이외의 2회는 TT에서 머뭇거림으로 전환	
머뭇거림 표시	70	75	문장구조 차이로 ST의 머뭇거림 표시가 TT에서는 생략되거나, ST에서 다른 기능을 하였던 말줄임표가 TT에서는 머뭇거림 표시로 기능 전환	
기타	의성어·의태어 강조	6	5	
	열거	1	1	
	머뭇거림+문장미완성	1	0	TT에서는 머뭇거림으로 나타남
합계	85	83		

원천텍스트에서 말줄임표가 사용된 문장은 전체의 7.64퍼센트인 47개 문장이지만, 경우에 따라 한 문장 안에서 복수의 말줄임표가 사용된 경우가 많아 총 출현 횟수는 원천텍스트에서 85회, 목표텍스트에서 83회로 문장수보다 훨씬 많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위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장 미완성 표시’ 3회, ‘생략표시’ 4회, ‘머뭇거림 표시’ 70회, 그리고 기타8회이다. 여기에서 기타는 <한글 맞춤법>에 따른 분류에서 제시한 기능과 상이한 기능을 하는 경우로, 의성어·의태어를 강조하거나, 단어의 열거, 머뭇거림과 문장 미완성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원천텍스트에서 ‘머뭇거림 표시’ 기능이 85회 중 70회로 총 말줄임표 사용횟수의 82.3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는 말줄임표가 “더듬거리고 머뭇거리”며(황도경 2002: 31), “말하기의 힘겨움을

5) 이하 원천텍스트는 ST로 목표텍스트는 TT로 표기하되, 데이터 분석을 제외한 본문에서는 경우에 따라 혼용하여 표기한다.

독자에게 인지시키”고, “빈번한 쉼표와 말줄임표를 사용”(양선미 2014: 189)하여 문장을 길게 늘어뜨리는 만연체 문장의 특성을 보이는 신경숙의 독특한 문체표지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다음에서 각각의 기능에 해당하는 번역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1) 문장 미완성 표시

<한글 맞춤법>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미완성 문장 다음에 오는 말줄임표에 마침표(.)가 있는 경우, 이를 문장 미완성 표시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문장 미완성 표시 기능으로서의 말줄임표는 원천텍스트(ST)에서 총 3회였으나, 목표 텍스트(TT)에서는 0회로 나타났다. 아래 <예시 1>을 보자.

<예시 1>

ST: 헝귀넨 후엔 곧 제 눈앞도 칠흑이 되어서 당신이 다시 와도 알아보지 못했으면…….

TT: After watching them out I would only see darkness before me and would not know you even when you came to see me....

앞서 논의한 영어 일립시스의 기능 분류에 따르면, TT에는 마침표(.)를 포함하여 4개의 점이 사용되어 ST와는 달리 완성된 문장임을 나타낸다. 즉, ST의 미완성 문장 표시 기능이 TT에서는 머뭇거림 기능으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기능의 전환이 일어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한국어의 말줄임표와 영어의 일립시스에서 문장 미완성 표시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말줄임표와 일립시스 간의 형태적 등가만을 추구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한국어에서 말줄임표가 문장 미완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할 때, 머뭇거림이나 주저함의 의미 또한 내포되어 있는데, 문장구조상 TT에서 완성된 문장으로 전환되면서 내포되어 있던 머뭇거림의 의미가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풍금이 있던 자리」는 원천텍스트에서 사용된 말줄임표의 82.3퍼센트가 머뭇거림 표시 기능을 할 정도로 화자의 머뭇거림과 주저하는 어투가 매우 유표적인 문체 특성이며,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⁶⁾.

(2) 생략 표시

생략표시는 ST에서 모두 4회가 사용되었으며, TT에서는 그 중 2회만이 생략표시로 나머지는 머뭇거림 표시로 기능이 전환되었다. 아래 예시를 보자.

<예시 2>

ST: …… 여기에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TT: ...I shouldn't have come here.

<예시 3>

ST: ……꿈이겠지,

TT: Is this a dream? I thought... it must be...

<예시 2>는 ST의 생략표시가 TT에서도 그대로 생략표시로 나타난 경우이며, <예시 3>은 생략이 머뭇거림 표시로 전환된 경우이다. ST에 사용된 말줄임표 중 생략표시 기능에 해당하는 예시는 4회에 불과하여 일반화된 기술을 하기는 어려우나, ST의 문장이 완전한 문장인 경우에는 생략표시 말줄임표가 TT에서도 생략표시 기능으로 번역되고, ST의 문장이 불완전 문장인 경우에는 문장구조상의 차이로 인하여 TT의 문장이 완전한 문장으로 전환되면서 생략표시 기능이 머뭇거림 기능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3) 머뭇거림 표시

머뭇거림 표시는 ST에서 모두 70회가 사용되었으며, TT에서는 75회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ST의 머뭇거림 표시 기능이 TT에서도 동일한 기능으로 번역되었으나, 경우에 따라 ST의 머뭇거림 표시가 TT에서는 생략된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ST에서는 없던 말줄임표가 TT에서는 첨가되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6) 김도훈(2011)에서는 이를 문장미완성 표시라고 분석하였는데, 한국어와 영어의 문장 미완성 표시 기능은 공통된 기능이므로 같은 기능으로 번역되었을 때 말줄임표의 번역이 잘 된 것으로 보았다.

<예시 4>

ST: 기……억은, 이상한 것이예요.

TT: Memories... they are strange things.

<예시 4>는 ST의 머뭇거림 표시 기능이 TT에서도 동일한 기능으로 번역된 것으로, 기능과 형태상의 등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머뭇거림 표시 기능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예시 5>

ST: 지금도…… 이 말을…… 당신께…… 꼭, 해야 하는가……?

TT: Even now... must I... tell you... this?

<예시 6>

ST: 나…… 나처럼은…… 되지마.

TT: "Don't... don't become... like me... whatever you do..."

<예시 5>와 <예시 6>은 ST와 TT의 문장구조 차이로 인하여 TT에서 일립시스의 사용 횟수가 줄거나 혹은 늘어난 경우를 보여준다.

<예시 7>

ST: 그…… 여자, 그 여자는 왜…… 다시 집을 나갔을까요?

TT: That... woman... why did she... have to leave?

<예시 7>은 ST의 쉼표가 TT에서는 일립시스로 전환된 경우로 총 1건이 관찰되었다.

<예시 8>

ST: 두 마리의 까치가, 참으로 부지런히 둥지를…… 둥지를 틀고 있었어요.

TT: A pair of magpies were building a nest... a nest... working assiduously indeed.

<예시 9>

ST: 저기 저 순한 연두색들이 짙어, 짙어져서는 초록이, 진초록이…… 될 테지요.

TT: The greenery over there that is now pale will be darkening.

<예시 8>과 <예시 9>에서도 ST 대비 TT의 일립시스 수가 줄거나 늘어난 경우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문장구조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어휘 반복을 통한 강조(예시 8의 경우), ST의 말줄임표가 TT에서 생략(예시 9의 경우)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 외 기타 현상으로 의성어 의태어를 강조하기 위해 말줄임표가 사용되거나, ST는 마침표 없이 문장이 끝났지만 다음 문장이 단락이 바뀌면서 문장이 시작되므로 문장미완성의 경우로 볼 수 있는 동시에 머뭇거림 기능도 나타났지만, TT에서는 문장구조의 차이로 인해 머뭇거림 기능만 나타난 경우가 관찰되었다. 예시는 아래와 같다.

(4) 기타

<예시 10>

ST: 어머니의 도마질 소리는 깉둑깉둑깉둑…… 경쾌했지만, 그 여자의 도마질 소리는 깉…… 푹…… 깉…… 푹……이었어요.

TT: The sound mother made on the chopping board, ch'om, ch'om... was light and cheerful, but she went ch'o...mph, ch'o...mph...

<예시 11>

ST: 제겐 그것만이 유일하다고 그렇게 저를 달래려고 했……

TT: it was all that mattered to me... that is how I used to comfort myself.

다음에서는 의성어·의태어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4.2 의성어·의태어

아래 표(5)에서와 같이 의성어·의태어는 그 쓰임에 따라 명사수식, 서술어(동사구) 수식, 서술어, (-대다, -이다, -하다, -거리다와 결합하여) 용언으로 파생된다.

풍금이 있던 자리」에 나타난 의성어·의태어의 기능별 사용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5〉 「풍금이 있던 자리」에 나타난 의성어·의태어의 기능별 분류

기능		사용빈도
명사수식		1
서술어(동사구) 수식		33
서술어		2
(-대다, -이다, -하다, -거리다와 결합하여) 용언으로 파생	서술어	12
	명사수식	6
	서술어(동사구) 수식	1
합계		55

「풍금이 있던 자리」의 원천텍스트에 사용된 의성어·의태어는 총 55개로,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이 1개,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이 33개, 서술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2개, 용언으로 파생된 경우가 19개이다.

아래 표는 ST와 TT에 나타난 의성어·의태어를 기능 및 사용빈도별로 비교해본 것이다.

〈표 6〉 ST·TT에 나타난 의성어·의태어 분석

기능				
ST	사용빈도	TT	사용빈도	
명사 수식	1	명사 수식	1	
서술어(동사구) 수식	33	서술어 수식	5	
		의성어·의태어 내포 (동사구, 명사구, 부사구, 형용사구)	20	
		생략	8	
서술어	2	서술어	1	
		기타	1	
용언파생	서술어	12	서술어	9
		의성어·의태어 내포(형용사, 부가어)	2	
		문화적 변환	1	
	명사수식	6	명사수식	5
		의성어·의태어 내포(명사)	1	
기타	1	문화적 변환	1	
합계	55	합계	55	

(1) 명사 수식

ST의 의성어·의태어가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인 경우로, TT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번역되었다.

<예시 12>

ST: 바로 위 오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
듯 했어요.

TT: A gurgling sound came from his stomach and his voice was choked
in tears.

ST의 의성어 ‘꼬르륵’이 후행하는 명사 ‘소리’를 수식하고 있고 TT에서도
같은 기능으로 표현되었음을 볼 수 있다.

(2) 서술어 수식

의성어·의태어가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구를 수식하고 있으며 TT에서는
ST와 동일하게 의성어·의태어가 부사로 번역되어 서술어를 수식하거나, TT에
서 의성어·의태어가 지닌 의미를 내포하는 다양한 품사로 전환되거나, 또는 ST
의 의성어·의태어가 TT에서는 생략된다. 각각의 예에 해당하는 아래 예시를 살
펴보자.

<예시 13>

ST: 누군가 열린 그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성큼 들어서 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TT: I mean hoping someone will come through that open gate and walk
briskly into the yard

(서술어 수식: ST의 의성어가 동사구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고 TT에서도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표현)

<예시 14>

ST: 대문 옆 포도나무 덩굴 감김새 위에 매추라기 한 마리가 포르르 내려
와 앉더군요

TT: A quail fluttered down and alighted on top of the grapevine by the
gate.

(의성어·의태어 내포 동사구: ST의 의성어·의태어+ 동사가 수식하는 서술어를 포함하는 동사구로 표현)

<예시 15>

ST: 제가 쿵, 떨어졌을 때 달려온 이는 그 여자, 그 여자였습니다

TT: At the thud of my fall, she was the one who came running.

(TT에서 ST의 의성어·의태어의 의미가 내포된 명사구로 표현)

<예시 16>

ST: 어머니께서는 환눈을 파시면서도 단숨에 척척 해내는 무생채 씨는 일은 특히 말이예요

TT: which my mother would do in a jiffy even while keeping an eye on other things.

(TT에서 ST의 의성어·의태어의 의미가 내포된 부사구로 표현)

<예시 17>

ST: 그토록 서성였는데 들어가 보니 집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TT: I had been loitering outside for such a long time but when I went in the house was actually empty...completely empty.

(TT에서 ST의 의성어·의태어의 의미가 내포된 형용사구로 표현)

<예시 18>

ST: 그때, 여자들은 누구나 자식을 덩실덩실 여럿 낳고 싶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TT: At such times, I imagine, the women would wish to have many more children.

(ST의 의성어·의태어가 TT에서 생략)

(3) 서술어

의성어·의태어가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는 아래 <예시 19>와 <예시 20>에서는 각기 다른 번역 양상이 나타난다.

먼저 <예시 19>의 문장을 제대로 갖춰진 문장으로 표현하면 ‘때를 지어 웅성웅성거리며/웅성웅성대며 온종일을 서성거리다가’가 될 것이다. 이때 형태와 의미의 대응을 고려한다면 의성어·의태어 속에 서술어가 응축되어 있어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시 19>

ST: 때를 지어 웅성웅성 온종일을 서성거리다가,

TT: a group of men standing around all day amidst their own murmuring and droning,

(ST 의성어·의태어의 서술어 기능이 TT에서도 서술어로 표현)

아래 <예시 20>에서는 ST 의성어·의태어의 서술어 기능이 TT에서는 ST에 서의 어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영어에는 없는 어휘를 만들어 ‘소리’의 표현적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시 20>

ST: 어머니의 도마질 소리는 깹둑깹둑깹둑... 경쾌했지만,

TT: The sound mother made on the chopping board, ch'm, ch'om, ch'om ... was light and cheerful,

(ST 의성어·의태어의 서술어 기능이 TT에서 sound의 표현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영어에 없는 ST의 의태어의 어감을 표현하는 어휘로 표현)

(4) 용언파생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는 파생접미사 ‘-하다’, ‘-이다’, ‘-대다’, ‘-거리다’와 결합하여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용언인 동사, 형용사로 파생되어 문장에서 서술어,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의성어·의태어가 용언으로 파생되는 경우 다른 조사, 접사, -어미와 결합하여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의성어·의태어의 주된 현상을 보여주는 예문을 중심으로만 살펴보기로 한다.

<예시 21>

ST: 당신은 얼굴빛이 붉으락푸르락해지셨어요

TT: the colour of your face changing to red and from red to blue

(ST에서 서술어로 파생된 의성어·의태어는 TT에서도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구로 표현)

<예시 22>

ST: 그 여자는 뽀송한 기저귀가 옆에 있는 환한 병아리색 이미지로 바뀌 놓은 거예요

TT: changed into the cheerful colour of a chick with dry, clean nappies beside it

(‘뽀송하다’는 후행하는 명사 기저귀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사용되었는데 TT에서도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표현)

<예시 23>

ST: 달걀도 풀어 몽울몽울하게 볶아서

TT: scrambled some eggs

(ST에서 ‘몽울몽울하다’가 부사격 조사 ‘-게’와 결합되어 부사어로 표현되었으며, TT에서는 이를 문화적으로 좀 더 자연스러운 ‘scrambled’로 전환하여 표현)

<예시 24>

ST: 아버지는 털이 보송보송하고 각이 진 밤색 모자를 쓰고 계셨는데

TT: He was wearing a chestnut brown angular cap of fluffy woolen material,

(ST에서 ‘보송보송하고’가 TT에서 의태어의 의미가 내재된 형용사로 표현)

4.3 분석결과 논의

지금까지 「풍금이 있던 자리」의 문체표지인 말줄임표와 의성어·의태어가 목표텍스트에서 어떤 양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대조 분석해 보았다. 논문의 앞머리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들을 주로 언어적 차이에 따른 번역전략의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어와 영어의 말줄임표와 일립시스, 그리고 의성어·의태어의 쓰임과 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이들이 텍스트에서 수행하는 문체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말줄임표의 경우, ST에서 총 85회가 사용되었는데 그 중 70회가 머뭇거림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T에서는 ST의 말줄임표가 일부 생략되어 총 83회가 사용되었으며, 한국어와 영어의 말줄임표와 일립시스의 기능 차이, 문장구조적 차이에 의해 기능이 전환된 경우가 발생하여 머뭇거림 표시

기능은 ST보다 많은 75회로 나타났다. 의성어·의태어의 경우에는 ST에서 총 55회가 사용되었는데, 서술어(동사구) 수식 기능이 33회로 가장 많았고, 용언파생을 통해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12회, 명사수식 기능이 6회로 뒤를 이었다. TT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의성어·의태어의 일대일 어휘 대응이 되지 않아 형태상으로 등가를 이루지는 않지만, 기능을 중심으로 세분화해 본 결과 ST와 유사하게 서술어(동사구) 수식, 그리고 용언파생을 통한 서술어와 명사수식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서술어(동사구) 수식 기능에서 의성어·의태어를 내포하는 동사구나 명사구, 부사구, 형용사구로 표현된 경우가 20회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말줄임표와 일립시스, 한국어와 영어의 의성어·의태어가 비록 형태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텍스트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원천텍스트의 문체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번역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어와 영어에서 어휘 수나 발달 정도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의성어·의태어의 경우, 기존의 분석에서는 등가 표현을 찾기 어렵거나 풀어쓰기 또는 생략의 전략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보았을 뿐, 어떤 경우에 특정 전략이 선택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기능별 분류에 따라 번역 양상을 관찰해본 결과, 원천텍스트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쓰임에 따라 목표텍스트에서 번역 전략이 달리 선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언어체계가 상이한 한국어와 영어 간의 번역 양상 분석에 있어, 어휘 차원의 등가에 대한 논의를 넘어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번역 선택이 텍스트 전체에 미치는 영향, 문체 효과의 측면까지도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5. 맺음말

「풍금이 있던 자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소설로는 드물게 의성어·의태어의 사용이 빈번하고, 텍스트 전반에 걸쳐 말줄임표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리치와 쇼트(2007:56)의 표현을 빌자면, ‘직관적 관찰’을 통해 말줄임표와 의성어·의태어가 이 작품의 문체적 특성을 나타내는 언어 표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리치와 쇼트도 언급했듯이 ‘직관적 관찰’은 독자 개개인의 역량에 그 결과를 맡길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또한 (번역)문체 연구에 어려움을 주는 원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풍금이 있던 자리」의 두드러진 문체표지로 활용되고 있는 두 기제, 말줄임표와 의성어·의태어를 먼저, 직관적 관찰에 의해 파악하고, 이를 다시 그 쓰임과 기능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번역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문체표지의 번역에 대한 좀 더 체계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텍스트 내의 쓰임이나 기능보다는 형식적 등가에 중점을 두고 언어 특성의 차이로 인한 번역전략의 관점에서 말줄임표와 의성어·의태어를 주로 논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말줄임표와 의성어·의태어를 한국어와 영어에서의 쓰임과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분류기준에 따라 원천텍스트와 목표텍스트에서의 기능을 대조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에서 비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는 말줄임표와 의성어·의태어의 번역 선택이 언어 특성의 차이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각각의 언어표지가 원천텍스트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따라 목표텍스트에서도 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였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 직관적 관찰에 의존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는 문체표지를 텍스트 전반의 문체 특성과 연계하여 그 번역양상을 정량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간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번역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말줄임표와 의성어·의태어를 그 기능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목표텍스트에서도 문체표지의 기능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둔다. 다만, 이러한 분석기준이 보다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광범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증해보아야 할 것이며, 한영 번역뿐만 아니라 영한 번역의 경우에도 상호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검증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2004) 「부록: <한글 맞춤법> 부분 개정안(문장부호)」, 『새국어생활』, 24(4): 180-195.

- 김경희 (2011) 「의성어와 의태어의 번역 전략 고찰: 한국 소설의 프랑스어 번역을 중심으로」, 『프랑스학 연구』 58: 33-53.
- 김도훈 (2011) 「영어문장부호 일립시스(Ellipsis)와 한국어 문장부호 줄임표의 비교 및 일립시스의 번역 전략」, 『영어영문학21』, 24(1): 113-134.
- 김도훈 (2011) 『문장부호의 번역학』, 서울: 한국문화사.
- 김도훈 (2014) 「형식문체소의 번역: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21』 27(1): 69-91.
- 김도훈 (2014) 「한-영 의성어·의태어 비교 및 번역 기법」, 『번역학연구』 15: 25-50.
- 김순영 (2010) 「김동인의 『감자(Potatoes)』 영역본 분석: 문체 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2(1): 79-95.
- 김순영, 이경희 (2012) 「『대성당』 번역본의 문체적 특성 고찰」, 『번역학 연구』 3: 33-58.
- 김순자 (2011) 「통신언어에 나타난 말줄임표의 의미와 기능」, 『한국어 의미학』 35: 1-21.
- 김진혜 (2006) 「사건의미론 관점에서 본 상징부사의 서술성 해석」, 『담화와 인지』 13(3): 1-23.
- 김홍범 (1995) 「한국어 상징어의 통사·의미론적 연구」, 『애산학보』 17:33-70.
- 김홍수 (2014) 「문학 텍스트와 문체론」, 『번역문체론』, 서울: 한국문화사, 37-64.
- 김훈 (1992) 「글과 무늬-신경숙에 대한 내 요즘 생각」, 『세계의 문학』, 서울: 민음사, 411-418.
- 노진서 (2008) 「한-영 시 번역 텍스트에서 활용된 의성어·의태어 번역 전략」,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10(1): 45-63.
- 목정수, 연채훈 (2000) 「상징부사(의성·의태어)의 서술성과 기능동사」, 『한국어학』 12: 89-118.
- 박옥수 (2011) 「한영문학 번역에서 문체의 반영: 박완서의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의 분석에 근거해서」, 『겨레어문학』 46: 69-95.
- 박혜경 (1993) 「추억, 끝없이 바스라지는 무늬의 삶」, 『풍금이 있던 자리: 신경숙 소설집』, 서울: 문학과 지성사, 287-303.
- 손남익 (1998) 「국어 상징부사어와 공기어 제약」, 『한국어 의미학』 3: 119-134.
- 신경숙 (1993) 「풍금이 있던 자리」, 『풍금이 있던 자리』,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신경숙 지음, 아그니타 테넨트 옮김 (2012) 『풍금이 있던 자리』, 서울: 아시아 퍼블리싱.
- 양선미 (2014) 「신경숙 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18(1): 173-193.
- 이은지 (2008) 「신소설의 상징어 연구(2): 다른 문장 성분과의 결합관계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22: 109-135.
- 이훈 (2003) 「풍금이 있던 자리의 구조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50: 2-17.
- 조창규 (2005) 「의성어 의태어,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언어학』, 13(3): 61-84.
- 채완 (2003)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용환 (1997) 「상징어의 통사적 정보에 대한 해석」, 『배달말』 22: 101-120.
- 황도경 (2002) 『문체로 읽는 소설』, 서울: 소명출판.
- 황은하 (2013) 「말뭉치에 기반한 한중 뉴스표체의 문장부호 번역 연구」, 『번역학연구』 14(2): 283-311.
- Boase-Beier, Jean (2006) *Stylistic Approaches to Translation*.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Enkvist, Nils Erik (1964) 'On defining style: an essay in applied linguistics', in John Spencer (ed.) *Linguistics and Style*, Oxford UP, 27-46.
- Leech, Geoffrey and Mick Short (2007) *Style in Fiction*, second edition, Great Britain: Pearson Education Limited.
- Stilman, Anne (1997) *Grammatically Correct: The writer's essential guide to punctuation, spelling, style, usage and grammar*, Cincinnati, Ohio: Writer's Digest Books.
- Woods, Geraldine (2006) *Webster's New World Punctuation: Simplified and Applied*, New Jersey: John Wiley & Sons.

[Abstract]

An Analysis of the Translations of Ellipsis and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as Style Markers in *The Place Where the Harmonium Was*

Kim, Soonyoung-Lee, Sunyoung
(Dongguk University-Seoul)

In Shin Kyung-Sook's *The Place Where the Harmonium Was*, frequent uses of ellipsis and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are observed throughout the story. This paper assumed that the prominent uses of ellipsis and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were intimately linked with the style of Shin. This assumption is in line with those of previous studies of Shin's literary style including Yang (2014), Hwang (2002), and Park (1993), who found 'hesitation' and 'sensuous rhetoric' to be the prominent features of Shin's *The Place Where the Harmonium Was*. In an attempt to examine how the two style markers were translated in English target text, the paper first categorized the functions of the two markers in the source text and then those in the target text. Unlike in the previous studies on ellipsis and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in literary translation where they were treated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formal equivalence without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s they play in the text, the paper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functions of the two style markers. The ellipsis is a direct strategy, which although formally different from hesitation, reproduces its effect in the target language, while alliteration and assonance, again formally different from the onomatopoeia and mimesis in the source text, creates a similar effect in the target text.

▶ Key Words: ellipsis, onomatopoeia and mimesis, style marker, translation of style

김순영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전공

imksy927@daum.net

관심분야: 번역문체론, 문학번역

이선영

동국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edusun@dgu.edu

관심분야: 영어학, 영어교육, 문학번역

논문투고일: 2015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5년 5월 31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8일